

에너지 수급 국제동향 및 예측

김 종 덕(에너지경제연구원 교육학술진흥실장)

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규모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큰 변화가 예상되며 러시아의 가스 유전 개발 및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 등으로 이 지역에서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.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국 및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기타 동북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.

21세기는 국제 기후변화대책 및 환경문제의 중요성 증대되는 시기인 만큼 기후변화협약 후속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된다.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및 청정개발체제(CDM) 실시 등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대두될 것이다.

수요부문을 보면 석유는 주요 에너지원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며 석유소비는 향후 증가율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 이는 기술진보에 따른 수송 및 산업용 에너지 이용효율의 지속적 향상과 주요 수입국, 석유제품에 대한 높은 세율부과로 인한 소비 위축 그리고 개도국의 에너지집약 산업보다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선호 때문이다.

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전히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CO₂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배출량은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향후 동북아지역의 경제력 성장과 에너지 자원 개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공급에 공동협력 방안이 수립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. 특히 러시아의 가스전 개발과 공급망 확충에 관련 국가들의 전략과 정책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.